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새누리의 진단

- 맞벌이 부부 자녀나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 후 돌봄정책 미비
- 소득·문화 하위계층의 초등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교육과 삶의 질을 높여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 추진
 - 대상 : 희망하는 초등학생
 - 교육내용 : 학생 희망에 기반한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 대상 : 맞벌이 가정 등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
 - 교육내용 : 학생의 숙제 보조 및 독서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새누리의 실천

- 온종일학교는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연차적 시행
-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새누리의 진단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등 급증하는 반인륜적 성범죄를 근절해야 하나, 성범죄 기소율과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실행률은 오히려 감소

새누리의 약속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 판결시 양형기준의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전문가(범죄심리학자 등) 증언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부인 방지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성매매 단속강화

새누리의 실천

-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성매매 단속 강화 체계 구축

새누리당은 **엄마의 마음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힘이 약한 아동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한 성폭력 사건들이 늘어나고 급기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성범죄 근절과 관련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당 최고위 산하에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위를 만들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 법률안들을 제출,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범죄로부터 우리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2013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으며, 대선공약 역시 치안인프라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꼼꼼한 예산추계와 실천방안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모든 성범죄들을 뿌리 뽑을 수는 없겠지만, 새누리당은 진정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걱정 없이 등학교 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근절 관련 법률안 (2012.11.22 본회의 통과)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았던
친고죄 조항 삭제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친고죄 조항 삭제 및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대상 범죄 확대 등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강도범죄 추가 등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16살 미만 대상 성범죄에만 적용되어 왔던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 확대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서도 실시 등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관련 2013년 예산 반영

■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CCTV 추가설치

■ 신속한 범죄현장 대응을 위해 이동형 방범 CCTV설치

■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CCTV 관제시스템 보급 등